

음성증상 정신분열증에 대한 Haloperidol과 병합 투여로서 Carbamazepine과 Valproic acid의 치료효과

고려의대 신경정신과학교실 : 최병훈 · 김승현 · 이민수

연구목적 : 기존의 항정신병약물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양성증상의 치료에는 효과적인 반면에 음성증상에 대한 효과는 명백치 않다. 또 치료저항성인 만성 정신분열증의 치료에 있어서, 항정신병약물에 항경련제인 carbamazepine과 valproic acid의 병합 투여가 시도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haloperidol을 투여중인 음성증상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대상으로 carbamazepine과 valproic acid의 병합투여가 만성 정신분열증 환자의 음성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방법 : Haloperidol을 투여중인 음성증상이 우세한 만성 정신분열증 환자 40명(남자 20명, 여자 20명)을 A, B, C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Haloperidol은 연구시작 2주 전부터 연구시작 후 4주까지 일정용량을 유지하였다. A군(14명)은 carbamazepine, B군(12명)은 valproic acid을 병합 투여하였고, C군(14명)은 대조군으로 삼았다. 모든 대상환자들에 대하여, 투여전, 투여후 2주, 투여후 4주 때 각각 BPRS, PANSS, CGI로 증상을 평가하였다. 약물 부작용과 추체의외로 증상들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 병합투여 2주와 4주후 때, A, B, C군 사이에 BPRS, PANSS의 양성, 음성 및 일반정신병리, CGI 척도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BPRS의 emotional withdrawal, psychomotor retardation, blunted or inappropriate affect 등 음성증상을 평가하는 각각의 항목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 항정신병약물인 haloperidol과 항경련제인 carbamazepine 또는 valproic acid의 병합투여는 기존의 항정신병약물에 호전이 없는 음성증상 정신분열증 환자의 정신병리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것 같지는 않았으나 향후 환자의 변인, 약물용량 및 투여기간과 음성증상에 대한 치료효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